

새마을 교 육

김 영 숙

<본회 서울시지부 상무>

오늘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양호교사 실무강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상고하게 될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그 실천에 있어 조금 다름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도시 새마을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행동강령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개최된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시어 시작되었으며 벌써 반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호응 내지 견제를 해왔습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외세의 문명과 의타심으로 인해 우리 머리속 깊이 뿌리박힌 안일한 타성과 체념에서 우리도 하던 된다는 신념으로 바뀌는 정신혁명이 각처에서 꺼질 줄 모르고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외형으로도 많은 번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며 잘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첫째 잘 살기 운동이고, 둘째 정신개발 운동이며, 셋째 경제개발운동입니다.

잘 산다는 뜻도 몇 가지로 간추린다면,

첫째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일이며, 둘째는 국민의 정신혁명으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

는 일이고, 셋째 나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내고장 내 나라가 이렇게 살고 또 이 복된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농촌에서 생선은 어촌에서 국토방위는 군에서 담당한다면 과연 도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 소비의 미덕에서 절약의 미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가난한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근면, 단결, 협동, 저축, 애향, 애국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말은바 위치에서 성실에게 책임을 완수해 나간다면 우리도 선진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민족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하진 구하되 잘못된 허황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고 시작할때는 치밀한 계획과 끝날때까지의 예산을 세워 시작에서 끝까지 중단없이 일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그말처럼 무모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먹 구구식이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성이 없고 비과학적이며, 둘째 배짱으로 해본다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턱대고 하는때까지 해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럭저럭이란 안일성이 포함되어 있고 되던되고 안되던 안된다는 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곧잘 그말을 인용하는데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된다는 체념보다는 된다는 신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물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 이웃을 아끼며,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 새마을운동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나갑시다.